WORLD CLASSIC MUSIC FOR GUITARIST

3

기타아 연주가를 위힌 **세 계 명 곡 집**

허병훈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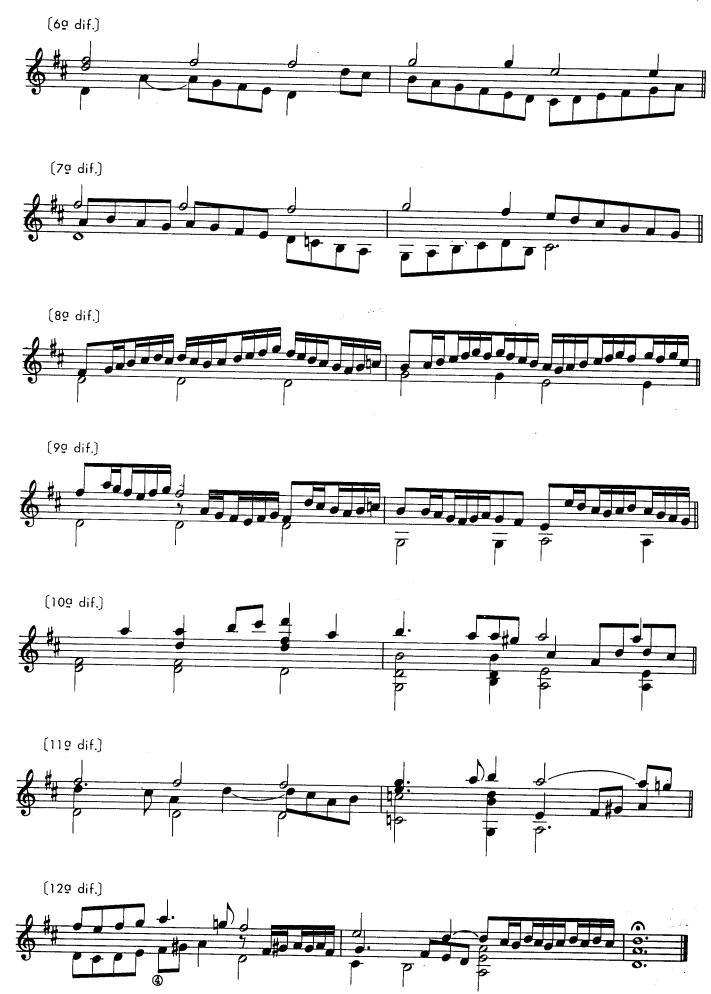
WORLD CLASSIC MUSIC FOR GUITARIST 3

Conde Claros ······(콘데 클라로스) ······A. Mudrra ········(
Fantasia···································
Chacona ····································
Folias ····································
Canarios ····································
Pavana ··································
Three Pieces(세개의 소품)H. Purcell
Minuet ······· 미뉴에트 ······17
Jig ····································
A New Irish Tune ······· 아일랜드의 선율······19
Suite In G Dur······(조곡) ······L. Roncalli
Präludium······ 저주곡·····
Alemande ······· 알르망드 ······ 20
Courante ······ 쿠랑테 ····· 21
Gigue・・・・・・・・・・・・・・・・・・・・・・・・・・・・・・・・・・・・
Sarabande····································
Gavotte···································
C: NA 1
Giga Melancolica······(우울한 지그) ······Anon. ·····23
PréludeJ. S. Bach ·······24
Chaconne·····J. S. Bach ·······26
PreludioM. Giuliani35
Grand Overture op. 61······(대서곡) ····································

Praludium ·······G. C. Lindsey······44
La Danse Des Naides(水神의 노래)J. Ferrer45
Three Mazurka ······(세개의 마주르카)····· F. Tárrega
Mazurka en Sol ···································
Arabesca······ (아라베스카) ······ E. Granados ······ 53
La Maja de Goya(고야의 마야 그림) E. Granados 58
Zulquei ····· J. O. Queiroz ······ 61
Antaño ······ O. Espla ····· 64
Choro Tipico No. 1···········(초로 제 1 번) ······ Villa-Lobos ······ 70
Quatre Pieces······(네개의 소품집)······ F. Marlin
Prélude 전주곡 70 Air 선율 73 Plainte 애가 74 Comme Une Gigue 지그 76
Madroños(中三로 丘) F. M. Torroba79
Rodeña ······· S. de la Maza ····· 82
El VitoS.de la Maza88
Nesta Rua·······(우리의 길)······ I. Savio ······92
Tango de la casada Infiel ····(탱고) ············· V. Asencio ········94
Partita ······ S. Dodgson ····· 97
Five Pieces From Venezuela (베네주엘라의 소품집)V.E. Sojo
Cantico 킨티코 104 Aguinaldo 아귀날도 105 Cancion 칸시온 105 Aire Venezolando 베네주엘라 선율 106 Galerón 갈레론 107 Danse Grecque (그리스 무곡) D. Fampas 108
Danise Officique

"Conde Claros" de Doze Maneras (Onginal for Vihuela)





Fantasia





Chacona





Folias

G. Sanz





Cana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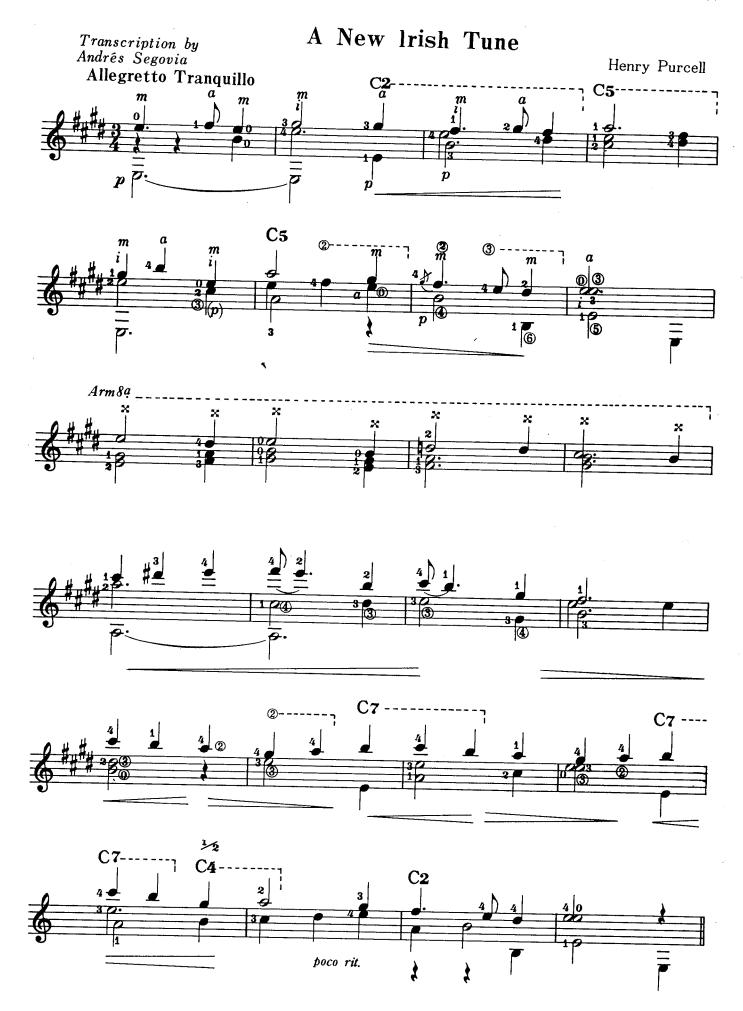


Three Pieces Minuet



poco rit.





Suite

(in G dur)

Aus der Tabulatur übertragen von Oskar Chilesotti







Giga Melancolica



Prél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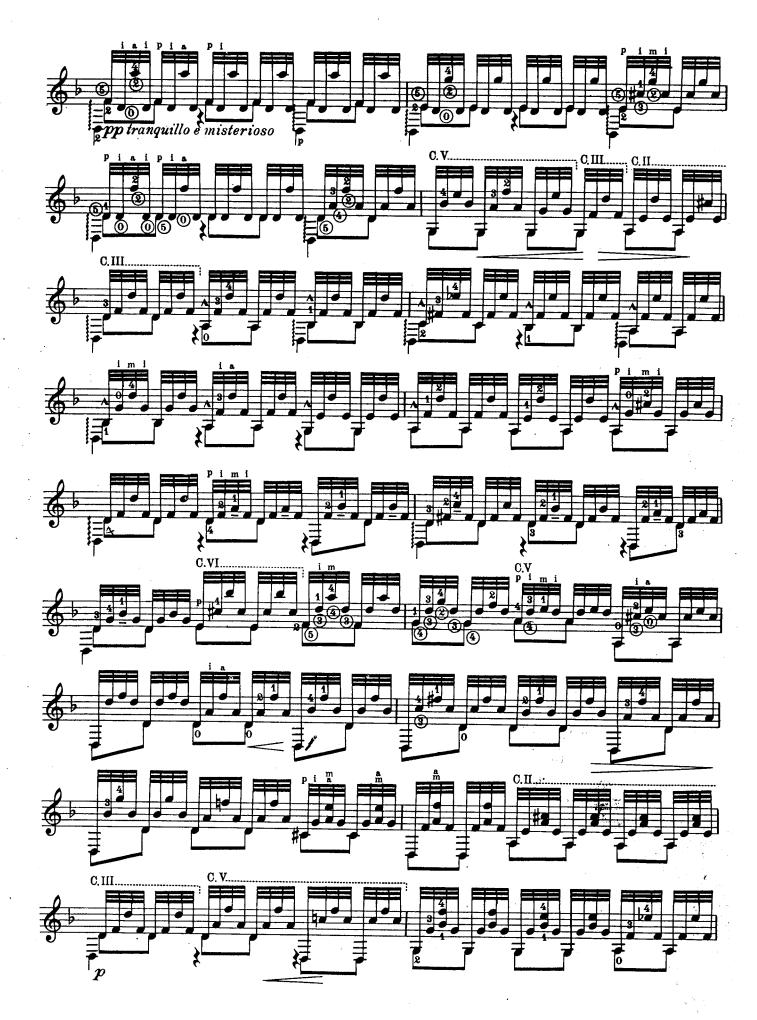
Chaco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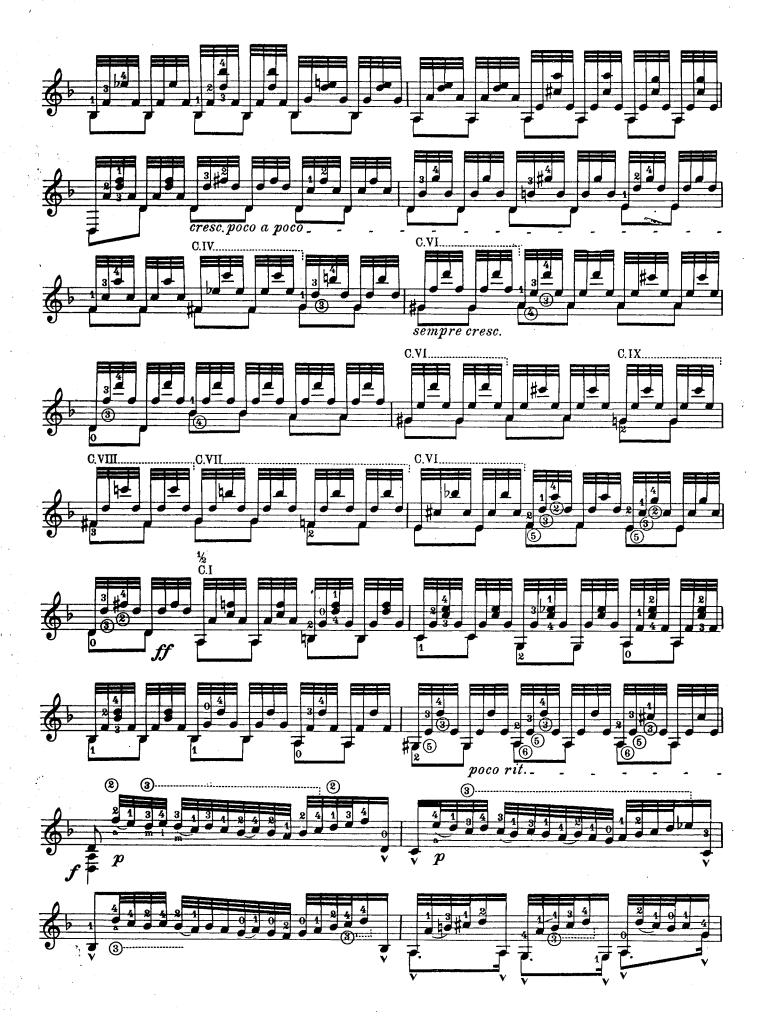
Transcription by Andrés Segovia J. S. Bach



















Preludio



Grande Overture

















Praludium



La Danse Des Naïades







Mazurka en Sol





Marieta





Sueno Mazur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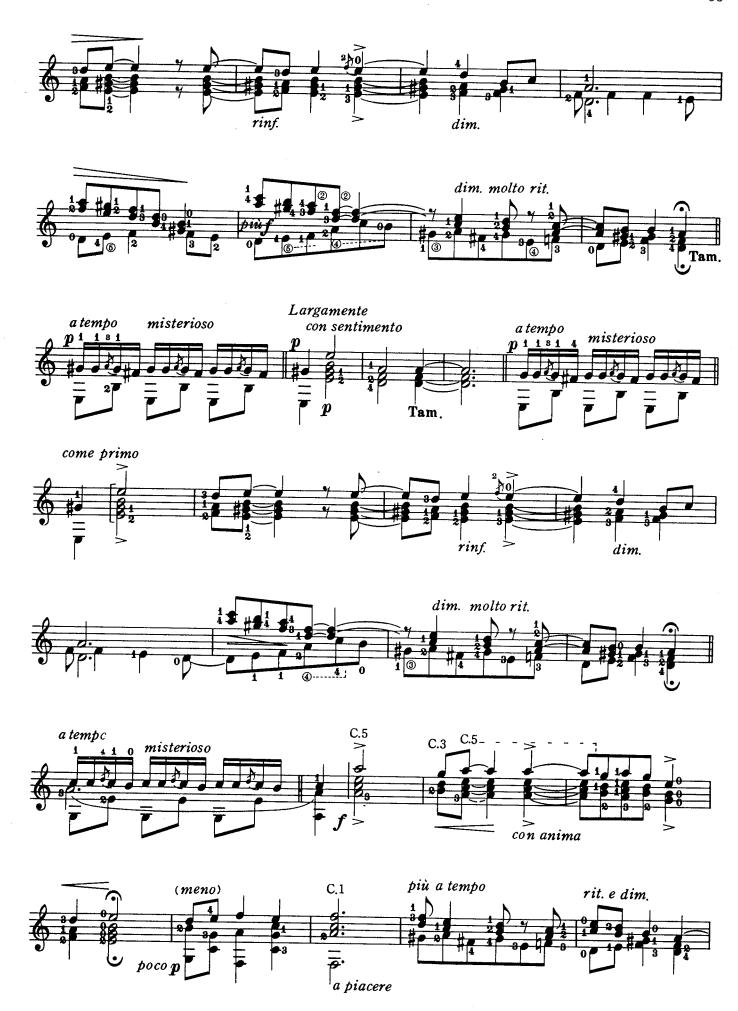
F. Tarrega un poco cres. rit. D.C. al Fin.

misterioso.

Arabesca No. 11











La Maja de Go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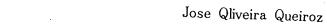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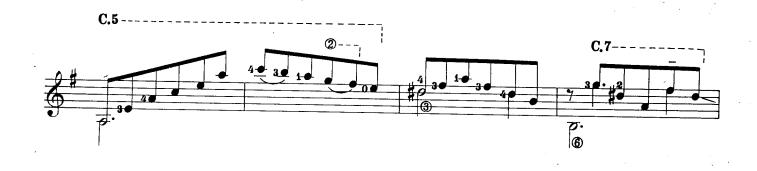


Zulqu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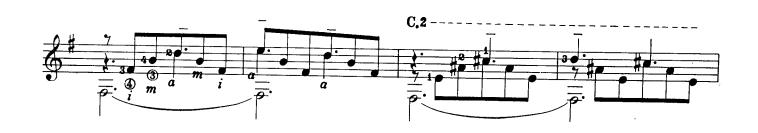
(Valsa)

















Antaño





Choro Tipico #1

(Brasileiro)









Quatre Pieces Breves







ll. Air



Ill.Plainte





IV. Comme Une Gigue







To Andrés Segovia

Madroňos







Rondeña













El Vi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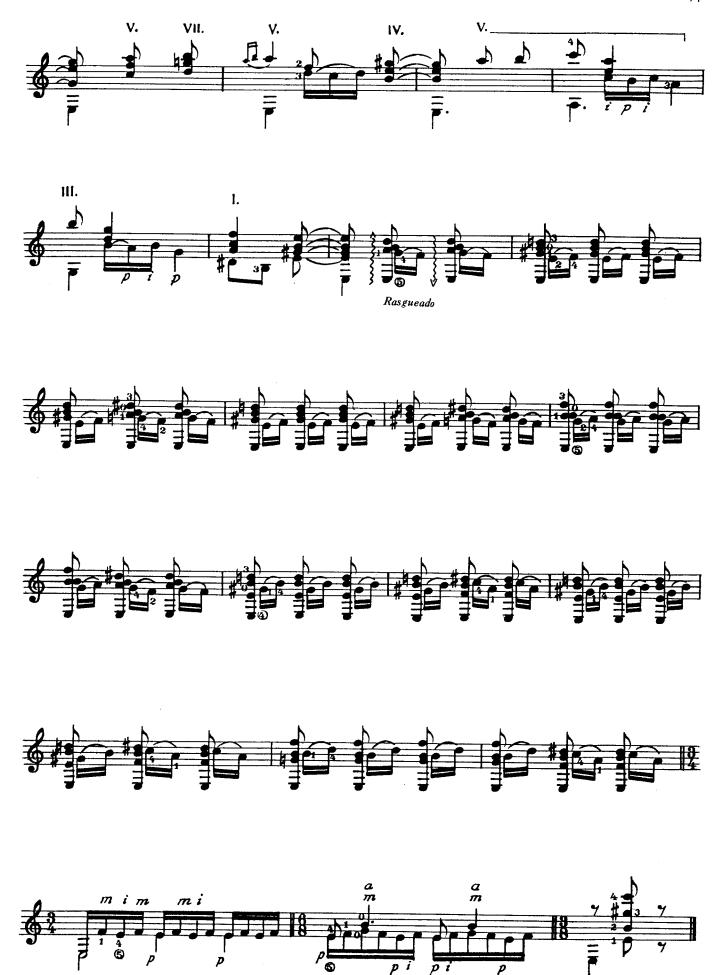
(Neuva version)

S. de la Maza









Nesta Rua

(*)

(Têma variado)

Isaias Savio (1900~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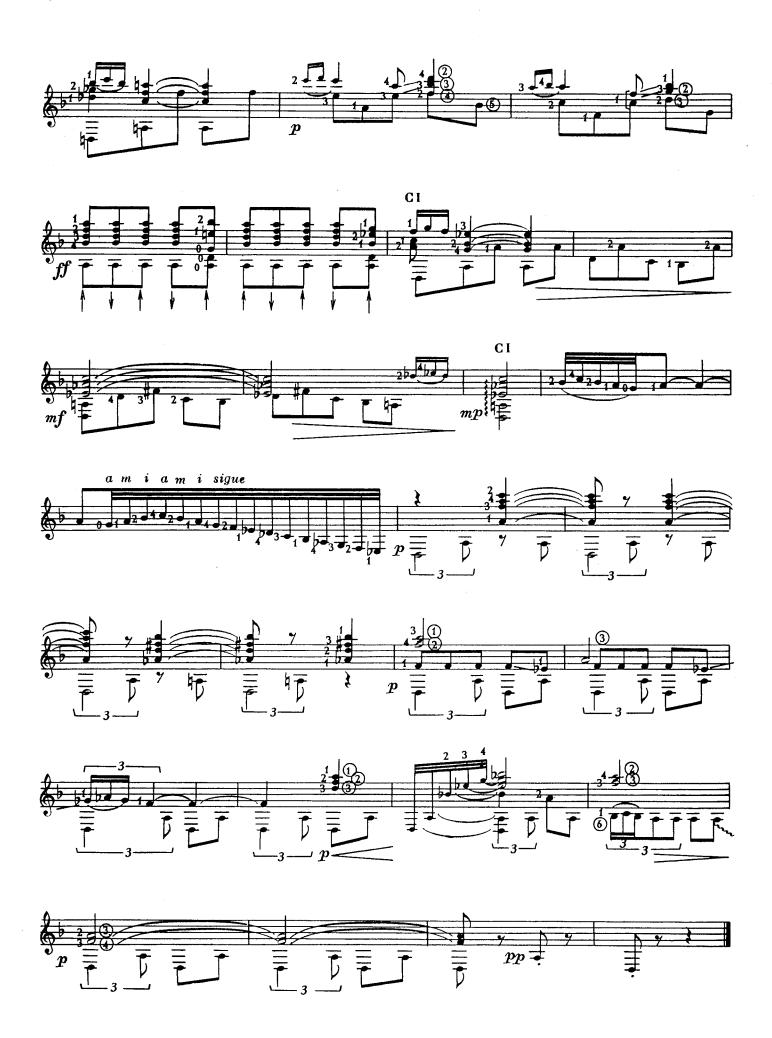




Tango de La Casada Infiel

Vincente Asencio Poco calmo (M=66)6 en Re Poco più mosso M 1-72 acelerando





Partita For 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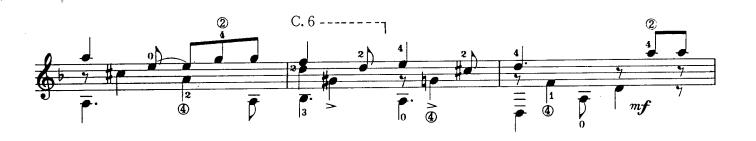




Five Pieces From Venezuela Cantico











Aguinaldo



Canción





Galeró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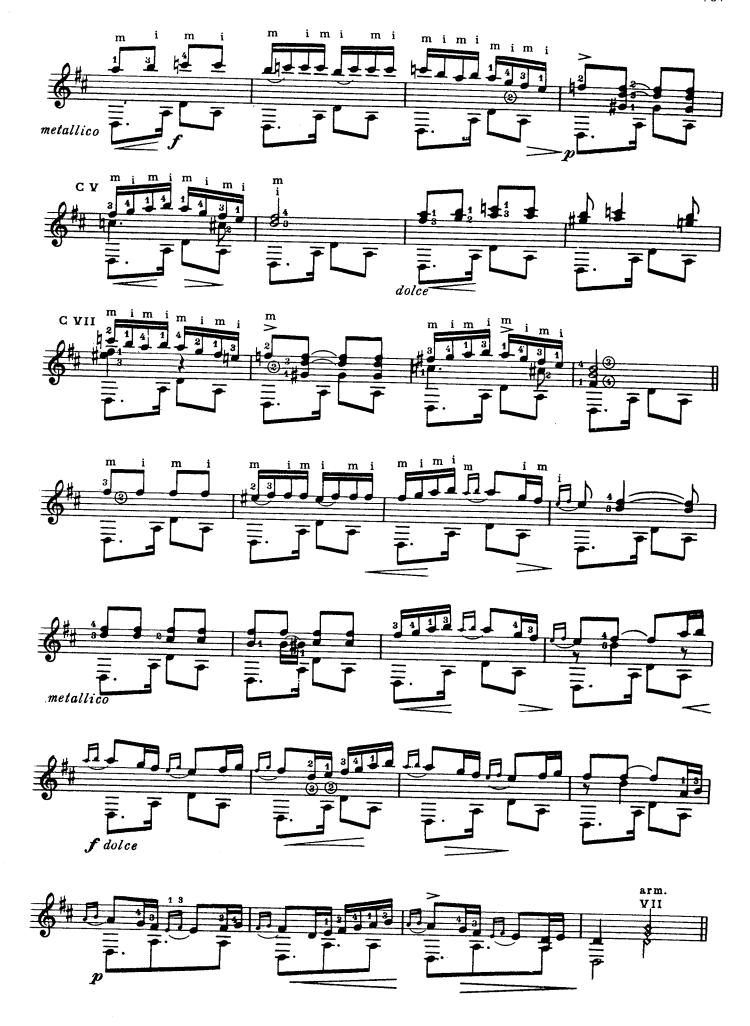


Danse Grecque

(Sousta)

Dimitri Fampas













악곡·주법해설

허 병훈

Alonso Mudarra (1510頃~1570頃)

16세기초 세빌리아에서 태어난 비엘라(Vihuela)주자이며 작곡가였던 그는 친왕령(親王領)의 공작가(公爵家)에 서 성장하며 음악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세빌리아 사원(寺院)의 역승(役僧)으로 1556년 순시관(巡視官)에임명되고 1566년에는 악장(楽長)이되어 1568년에 사원의 오르간 건설에 참가하였다.

1546년 비엘라를 위한 세개의 곡집을 출판했는데 이 곡집에는 Cancion, Pavana, Galliard, Romanesca, Fantasia Soneto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그 중의가곡은 민요사(民韶史)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성직에 있으면서 종교음악, 궁정음악, 민중음악을 흡수하여 자신의 음악속에 반영시켜 오직 예술과 신(神) 앞에 음악을 바친사람이라 할 수 있다.

Conde Claros, de Doze Maneras

이곡은 부드럽고 온화한 중에도 부점음부의 뚜렷한 표정은 강하고 경쾌한 맛을 준다. 느린 템포에서 지속음이 충분히 이어져야할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선율의 표현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곡에 더욱 폭넓은 표현을 위해서 ⑥ 번선을 완전 1도 아래의 Re로 조율하여 연주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물론 약간의 어레인지먼트(Arrangement)가 요구된다.〉

Anthony Holborne (1545頃~1602)

반도라(Bandora:류트족의 악기로 Bandola, Pandora라고도 부른다.) 작곡가 로서 그의 명성이한창영국과 유럽 대륙까지 전해지던 시기에 즈음하여 2년간 외국여행을 계획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그는 학식있는 신사였다고 전해지며 J. Dowland가 1600년에 출판한 자신의 가곡집 제 2 권중의 1 곡을 Holborne에게 바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Dowland와도 친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은 52개의 Lute 를 위한 독주곡과 15개의 반도라 (Bandora) 를 위한 독주곡이 현재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작품들은 전부 1967년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Anthony Holborne 전집 제 1 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의 곡에는 폴리포니 (Polyphony; 둘 이상의 성부가 각각 독립적인 입장에서 대위법적원칙에 맞게 진행되는 음악으로 르네상스시대에 발전하여 18세기전반 바하를 정점으로하여 완성됨. 대표적 양식으로 Fugue 형식을 들수 있음) 적 요소가 강하여 기교적으로도 힘든 작품이 많다.

(Fantasia)

Dowland의 작품과는 달리 소박한 면이 있고 다성적인 수법으로 Fugue 적 진행을 보여주며 비교적 자유로운 흐름을 갖고 있다. 대선율의 특징있는 해석이 요구되며 짧은 음의 재치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Gaspar Sanz $(1640 \sim 1710)$

Robert de Visée (프랑스, 1650頃~1725頃), Fransico Corbeta (이태리, 1612頃~1681), Sanz 를 일컬어 전고전시대(前古曲時代)를 장식한 기타의 3대 거장이라 부른다.

Sanz는 스페인의 가란다에서 태어나 살아망가 대학에서 신학학위를 얻고 이태리에 건너가 레리오 고리스다에게 기타를 배웠는데 그 당시 이태리는 기타음악의 전성시대였다.

Sanz는 나폴리 음악교회의 오르간주자인 크리스토 바루·갈리산에게 오르간 연주법과 음악이론을 배웠으며 귀국후에는 3권의 5현 기타책을 출판하였다. 제 1권은 1674년「기타의 理論과 奏法」에 곡집을 첨가한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중에 E단조의 조곡(組曲)이 몇해전 파리 국제기타 콩쿨의 과제곡으로 나타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anz의 곡은 de Visée의 곡과 같은 5현 기타用으로 되어있어서 현대기타의 제 6 현은 사실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E. Pujol (1886년 스페인 태생 Vihella 주자이며 기타리스트, 비엘라, 류트음악을 기타곡으로 옮기는데 공헌하였고 세계적 기타의 역사가로 권위를 갖고 있다.)의 편곡은 현대기타의 레파뜨와로서 제 6 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훌륭한 것이며 세계 기타리스트의 애주곡으로 되어 있다.



이곡은 연주자마다 반복이 각각 다르다. 원곡에도, 또 Pujol 의 악보에도 특별히 지정한 곳은 없으며 또한템포에 있어서도 주자의 취향에 달려있다.

(Chacona)

이 무곡은 원래 느린 풍의 장중한 곡인데 여기서는 Vivo로 표시되었다. Sanz 시대에 메트로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활기있는 템포가 좋다고 보며 29소절부터 끝까지 16분음표에 한해서는 연주자의 편의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슬러slur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Folias)

학습자중에는 왼손의 트릴주법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지정된 운지에 따르지 않고 우선 쉽고 자신있는 운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악습(團習)은 계속적인 악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미 수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점(虚点)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곡에서는 그러한 요령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언젠가는 연주의 분명한 한계를 느끼게 된다.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바르게 운지를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Foliā는 4부분의 변주곡으로 화음의 진행은 유명한 corelli (Arcangelo Corelli; 1653~1713)의 바이얼린을 위한 La Folia와 공통으로 되어있다. 이 진행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무곡이 전형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는 Chaconne, Passacaglia에 이어 장대한 변주곡으로 만들어진 예가 많다. 우선 Pavana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러개의 화음중에 한음만이 트릴 trill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있으나 기타에 있어서 연주상 큰 어려움은 없다.

(Canarios)

Henry Purcell (1659~1695)

17세기 후반에 단음악을 사용한 오페라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은 영국사상 최대의 음악가이며 오페라의 대가인 퍼셀이다. 그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쳤는데 그 이후 영국 극음악의 장래는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바로크 중기(中期)에 있어서 영국최대의 작곡가로서 본격적인 대위법적인 기법에 영국과 프랑스 음악의 영향을 받아 영국음악에 동화시킨 천재적인 이 음악가의 특성은 자유분방함에 있으며 선율의 아름다움과 영국풍의 성격이 풍부하게 발휘되어 있다.

(Minuet)

멜랑꼬리한 이 선율은 인상적인 곡으로서 고요한 정취가 흐르는 A단조의 곡이다.

(J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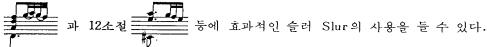
리듬은 우리가 알고있는 용이라든가 날의 바로크 시대 특유한 것과는 달리 《로 약간 빠르게 연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A New Irish Tune)

원래 하프시코드를 위한 곡으로 고요하며 신선한 감각이 충만된 아름다운 작품이다. 중간에 보이는 옥타브하모닉스의 기교는 하프시코드의 스톱장치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음색변화를 내며 연주할 수 있었던 효과를 A. Segovia의 감각으로 옥타브 하모닉스라는 기교로 변화있게 기타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편곡자에 의한 곡들은 옥타브 하모닉스나 그외의 주법을 사용하지 않은 실제음으로 연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라다.

Ludovico Roncalli (17C?)

5 현기타의 작곡자에 대한 기록이 대체로 빈약한 바와 같이 Roncalli 역시 그러하다. 조곡은 전체적으로 빈틈 없이 짜여져 있는 엄격한 형식을 취했으며 선율과 리듬의 간소화는 화려하고 기교적인 면을 없애는 역환을 하였지만 정통음악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곡의 품위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대바레(大 Barre)를 요구하는 화음군이 특색을 이루며 각 무곡별로 특성을 살려 Campanella 형과 슬러 Slur 또는 부점음부등의 배열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분위기에 맞는 감각적인 탄주가 이루어져야 하겠다.예를 들어 Gigue의 7소절 제 3박--



J. S. Bach $(1685 \sim 1750)$

(Präludium)

이 소전주곡(小前奏曲)은 원래 류트 Lute를 위한 곡이지만 피아노의 연주자에게도 잘 알려진 곡이다. 원조(原調)는 C단조이나 기타에서는 A. Segovia에 의하여 조바꿈이 되었다. 아르페지오의 최고음(最高音)은 약간 강하게 탄주하여 여음(余音)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저음의 움직임도 _____ 로서 나타낸 것과 같이 연주하는 편이유동감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새끼 손가락만으로 동시에 세개의 음을 짚는 소바레(小 Barre)가 나오는데 특별한 연습이 필요하며 템포는 보통 빠르기 이상으로 선택하고 곡의 끝에가서는 특별히 느리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더욱 이곡을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의도하지 않은 일체의 악상처리(楽想処理)는 피하여 작곡자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연주하는 것이 좋다.

Chaconne (무반주 Violin Partita 제 2 번 D단조 Bwv 1004 에서)

샤콘느는 본래 스페인에서 시작된 곡으로 Passacaglia와 같이 16세기에 나타나 종종 종곡(終曲)으로취해졌다. 형식은 주세의 계속적인 반복을 하며 선율적, 혹은 리듬적인 변주를 되풀이 전개하는 것이다. 전체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제 1부는 D장조로 전조(転調)하는데까지 기타만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32분음부의 아르페지오 Arpeggio가 끝나면서 조바꿈 되기 전까지의 32분음표 음계는 무척 강열한 느낌을 준다. 제

2 부는 조용히 시작하여 점차 화성적인 진행으로 정말 기타적인 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 성부터 3 성부까지 발전하여 다시 단조로 바뀌는데까지의 진행은 기복이 심하여 연주의 묘미가 있는 곳이다. 끝부분까지의 제 3 부는 대략 제 1 부와같은 변주가 계속되나 후반은 아르페지오 Arpeggio가 눈에 띤다. 끝부분의 3 연음은 왼손의 이동이 심하여 자칫 흐름이 나쁜 연주가 되기 쉬운 점도 있다. 샤콘느는 구성이나 호소력이 더욱 강하며 고도의테크닉을 요하는 난곡(難曲)이라 할 수 있다. 이곡은 부분적으로 나누어 철저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Ponticello=브릿지 Bridge 바로 가까이에서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 음빛깔은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을 준다〉

Anon (1700頃)

(Giga Melancolica)

깊은 우수에 젖은있는 이곡은 지그의 리듬을 가지고 조금 빠른 텐포로 탄주하기 때문에 우울한 가락이 변형될 우려도 있으나 오히려 더욱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역활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 ♪ 율동에서 ♪ 의 길이가 짧기때문에 강렬한 감을 주지만 ↓ 은 마치 3 연음처럼 묶여져 있고 슬러slur로 치장되어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잘 나타낸 곡이라 볼 수 있으며 왼손의 운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Mauro Giuliani $(1780 \sim 1840)$

쥴리아니는 바이얼린의 N. Paganini (1782~1840),피아노 연주의 F. Liszt (1811~1886) 에 필적하는 명성을 지닌기타 연주의 대가였으며 F. Sor와는 3살의 차이가 있었지만 런던 음악계에서는 동시대의 라이벌이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바를레타에서 1781년에 태어나 바이얼린과 기타, 플륫을 공부했다. 그가 기타연주가의 대가로서 유럽전역에 걸친 연주여행을 처음 갖게된 것은 1800년경이었고 1807년에는 비엔나에 정주하였다. 비엔나에서 그는 슈벨트, 베토벤, 웨버, 홈멜과 같은 당대의 대작곡가들과 사귈 수 있었다. 베토벤은 자기작품 몇가지를 쥴리아니를 위해 편곡하여 1813년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 초연(初演)시 바이얼린이나 플륫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악기로 반주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그곡들이 확실히 발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23년 런던으로 건너가 연주했는데 거기서 그는 매우 유명해져서 런던에서 새로 발간된 한 기타연주 관계지는 그의 이름을 따라「쥴리아니아드(Giulianiad)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였다. 현재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쥴리아니의 연주용 작품이라면 기타와 현악을 위한 협주곡 A장조 Op. 30으로 이곡은 그가 작곡한 네개의 협주 곡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독주기타를 위한 작품으로는 전주곡, 소나타, 연습곡등 대단히 많다. 그의 Sonata Op. 15, C장조 Allegro 제 1 악장과 대서곡(大序曲) A장조에 있어서는 피아노 소나타와 유사한 소나타 법칙을 기초로 하여 작곡된 훌ㆍ스케일ㆍ피스(Full Scale Piece)가 그 특징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쥴리아니의 고도로 발달된 기교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다이나믹(강약법)에 대한 구조적 감각의 세련도를 요구하고 있다. 대서곡(大序曲)은 단조로 엮어지는 짧고 느린 서주가 있는 뒤, 장조의 소나타 악장이 전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다, C장조부분의 Allegro는 슈벨트적인 음형으로 속삭이듯하며 바로 진행된다.

(Prelude)

이곡은 일명「비장」으로 일컬어지는 곡이다. 자줄마다 장력(Action)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좋은 곡으로 볼 수 있다. Arpeggio 연습곡으로는 더없이훌륭하여 Campanella속에 숨겨진 멜로디를 찾아서 뚜렸하게 나타내도록 하여야 할 점등은 연습곡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곡이라 할 수 있다.

Joseph Ferrer (1835~1916)

스페인에서 태어나 Jose Broca에게 사사하여 수년 후 기타교수와 연주가로서 성공하여 1882년에는 파리에 Comedie Francaise의 기타리스트로서, 수종(数種)의 악기를 교수하였으나 바르셀로나에 돌아가 Liceo의 음악

학교 기타교수에 임명되었다.그의 작품으로는 기타독주를 중심으로 2중주곡, 기타와 피아노, 기타와 플륫, 성악과 기타등 약 100여곡에 달하지만 그의 곡은 별로 연주되지 않고 있다. 그는 A. Cano와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낭만성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갖게하는 일반성(一般性)을 지니고 있다.

(La Danse des Naiades)

Larghetto 의 서곡에 이어서 마즈루카조(調) (Mouvt de Mazurka)로 되어있는 무곡으로 전개되며 중간에 E 장조의 활기있는 진행이 되고 다시 단조의 무곡으로 돌아가 Coda에 이어 조용히 끝난다.

Francisco Tárrega (1852~1909)

기타의 사라사데라고 불리우는 타레가는 스페인 바렌시아주 카스테리온의 빌라레알에서 태어난 기타리스트이며 작곡가이다. 그는 종래 볼 수 없었던 왼손과 오른손의 운지법의 일대혁신을 가져옴으로서 더욱 풍부하고 빛나는 음악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오른손의 탄현법과 운지법은 가장 새롭고 능률적인 것으로 현대 기타음악의 선구자적 역활을 맡게된 것이다. 그는「알함브라의 회상」,「아라비아 기상곡」등 작곡, 편곡을 합하여 300 곡이상의 작품이 있다.

(Mazurka)

폴랜드에서부터 발생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작곡가들이 마주르카라는 제목으로 쓰게된 것은 18세기초로 마주르카라는 형식으로 높은 예술적 향기를 풍기는 작품을 낳게 된 동기는 쇼팡의 피아노곡에 있다. 쇼팡은 마주르키라는 무곡이 가지고 있는 리듬과 멜로디의 특징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가느다란 서정을 가진 것들을 훌륭하게 표현시킨 인물이라 하겠다. 타레가가 그의 작품중에 많은 수의 곡을 마주르카라는 형식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쇼팡과 같은 곡을 써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Marieta)를 보면 쇼팡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쇼팡의 마주루카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것은 타레가의 성격이 쇼팡과 같은 면을 지니고 있는 것과 고의로 쇼팡이 사용한 형식을 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세곡에 걸친 짙은 희색적인 성격과 타레가의 성격인 간결하고 깊은 사색이 우울하게 또는 밝게 그려진 곡이다.

Enrique Granados $(1867\sim1916)$

(Arabesca)

원래 아라비아 건축형식에서 온 화려한 기악곡으로 아라비아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아라비아는 중세에 꽃 핀 사라센 문화의 발상지로서 우수한 음악적 이론을 가지고 중근동 제국에 끼친 영향이 크지만 지금까지 그 영향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의 스페인이라 할 수 있다. 주제의 계속적인 반복과 거기에 따른 변화와 악상기호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는 이 곡은 기교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은 없지만 근대적인 색채와 균형있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곡중의 12, 13, 14, 15, 소절과 똑같은 형식이 세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박자 첫머리는 4분음표의 지속을 나타내며 다음 16분음표에 한하여 Staccato를 요구하고 있어서 좀더 함축미있는 탄주가 필요하다.

⟨misterios 는 신비스럽게 또는 비밀을 가진 듯이 연주하라는 지시이다♪

⟨Goya⟩

스페인의 저명한 화가 고야Goya의 그립중에 옷입은 유명한 미녀의 탈의(脱衣)가 있는데, 이곡은 그 그림으로부터 착상되어진 Tonadillo 무곡으로 흉박자가 여유가 있으며 M. Llobet (1878~1938;타레가의 세자)의 편곡은 제 5 현을 Sol, 제 6 현을 Re, 로 완전 1도아래로 낮추어져 있어서 풍부한 가락을 만들고 있으며 마음가는 대로 노래를 부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곡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기교적으로 난곡에 속하므로 집중적인 연습이 요구되며 특히 왼손 운지의 연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Jose Oliveira Queiroz

⟨Zulquei⟩

스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 용의 혼합박자로 되어있는데 부제는 월츠로 씌어있다. Zul는 Queiroz 아내의 이름으로 Zulquei 라고도 하며 제목자체의 의미는 없다. 전반은 급속한 단조로, 후반은 3 연음부에 의한 분산화음으로 되어 있어 그 속도를 높이게 되어있다. 이곡은 문법적인 수법이므로 생각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Valsa Choro No. 4」「Lagrima de Mae」「(Valsa) A major」「Berimbau」와「Zulqu-ei」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의 곡들은 대개 감미롭고 향기높은 서정을 갖고있다.

Oscar Espla $(1886 \sim)$

J. Turina, J. Rodrigo와 같이 현재 스페인 원로음악가중의 하나이다. 그는 스페인 동부의 민속음악을 연구하였으며 때로는 특별한 음계를 사용했고 표현주의적인 면도 보여주고 있다.

작곡가이며 평론가인 에스플라는 처음에는 토목기사였으나 음악을 독학하였으며 후에 철학으로서 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독일에 유학하였는데 1909년 「동양풍의 모음곡」(Suite levantina)으로 비인에서 음악상을 받았다. 1931~1936년 국민음악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1936년 마드리드음악원장을 지냈고 프랑코의 반란으로 일시벨기에로 망명하였다가 1951년 다시 귀국했다.

그는 스페인의 민요를 수집하여 동양적 음계에 의한 대규모적인 작품을 작곡하였다. 그는 Falla와 함께 스페인 음악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오페라「잠자는 미녀」, 칸타타「악마의 크리스머스」, 교향시「에로스의 꿈」, 「돈키호테」, 「행복」등이 있다.

(Antaño)

근대미를 추구한 서정이 흐르는 내용을 갖고 있는 곡으로 Andante의 템포를 유지하다가 perdendosi (점점 사라지듯이) 이후 animato scherz부터 감각을 바꾸어 활기있고 선명하게 연주하며 ponticello (Bridge 부분에서 탄주)이후 lento dolcis에서 투명한 표정이 되도록 연주한다. pizzicato, ponticello, Harmonics 등 여러가지 감각을 표현한 주법과 악곡변화에 섬세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Heitor Villa - Lobos (1887 \sim 1959) (Choro #1)

Frank Martin (1890~)

금세기 전반의 걸출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젊은 시절 파리에서 수학했으며 1928년경부터는 스위스에 돌아와 작곡활동과 명론, 교수(자신이 음악학교를 창설하였다)에 이르기까지 활약하였다. 현재 유럽 악단의 최고 령자의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오라토리오「땅에 평화를 1945」, 현주곡, 관현악곡, 피아노둥 각 분야에 걸쳐 우수한 작품을 썼다. 마르틴은

천베르크와 그 유파에게서 배운 12음기법 (12音技法)을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구속받지않고 때로는 조성음악 關性音楽) 과 혼용(混用)하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타독주곡 〈 4개의 작품〉에도 그러한 마르틴의 작품(作風)은 잘 표현되어 있어 현대 기타음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J. Bream에게 바친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Federico Moreno Torroba (1891 \sim)

부친은 유명한 오르간주자로 그의 지도하에 음악생활을 시작한 Torroba는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마드리드 왕립 콘세르바토리오에서 수학했다.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팔탸, 튜리나등 스페인의 많은 작곡가들이 프랑스에 유학하여 대성하였으나 토로바만은 젊은 시절 프랑스에 가지 않았다 한다. 그는 스페인에 머물러 작곡에 열중하였는데 처음 오케스트라곡을 많이 써 스페인 독특한 오페레타, 즉「사루스에라」같은 작품은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뒷골목 처녀」「가라바의 여자와 몬테가르메로」등이 그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타를 갖고 있었으나 1920년에 처음 세고비아의 연주를 듣고 세고비아를 위하여 곡을 쓰기시작하였다. 세고비아 자신도 토로바를 자기에게 협력해주며 레파뜨와를 넓혀준 최초의 작곡가였다고 말하고 있다. 토로바의 곡에는 Sonata, Concerto와 같은 형식악도 있으나 그와 같은 어려운 꼭보다는 스페인 무곡과 민요를 주제로한 것중에 보다 좋은 작품이 있다. 그는 맹인 작곡가 로드리고와 함께 만든 2 막 오페레타 「푸른악마(Elduend Azul) 도 남기고 있다.

(Madroños)

값비싼 물건(장신구)를 지니지 못한 자신을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신사들을 조롱하여 마드로뇨 즈라 부르는데 마드로 뇨즈는 붉은 색이 도는 산복숭아의 일종으로 스페인에서는 이 열매를 본따 만든 것으로 말 이나 모자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다 한다. 따라서 이곡은 세빌리아 및 마리스마지방의 풍물을 연상케 해주는 것으로 중부지방의 민요를 소재로한 남국적인 밝은 악상으로 충만되어 있다.

Sainz de la Maza (1897 \sim)

(Rondeña)

론도풍의 자유로운 로맨틱한 내용이 가득찬 곡이다. 이곡 처음에 Bien marcado (한음 한음을 똑똑하고 세계)를 빼고나면 악상기호는 아무 것도 없으나 표정은 풍부하여 스페인적인 색채나 리듬의 변화가 다채롭다.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며 개성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El Vito⟩

안다루시아지방의 민요〈El Vito〉를 주제로한 동명(同名)의 곡이지만 단순한 노래인 이곡은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보이는 우수작으로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Isaias Savio $(1900\sim1944)$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나 8세때 피아노를 시작, 루다스 알바에게 기타수업을 했으며 1918년 M. Llobet를 알게되어 그의문하에 들어가 타레가 기법을 배웠다. 알젠틴, 우루과이 연주여행후 브라질에 가서 19 32년부터 1940년 까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활동하였다. 1941년부터 상파울에 정주하여 연주, 작곡, 교육에 종 사하며 1947년 상파울 연극음악 콘세르바토리오에 브라질 최초의 정규과목으로 기타과의 창설에 성공하여 주임 교수가 되었다. 교육, 작곡, 편곡외에도 고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타연주가, 작곡가의 연구에 헌신하여 악보 및 기타문헌을 방대하게 수집하였다. 그의 작품수는 300여에 이르기도 한다.

⟨Nestra Rua⟩

「우리의 길」이라는 이곡은 브라질의 널리 알려진 민요에 세개의 변주곡을 붙인 것으로 각 변주마다 기타의 연주기교가 잘 살려진 면이 있어 재미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변주가 끝나면 또다시 테마를 천천히 연주하며 곡은 끝난다.

121

Vincente Asencio (1903~)

스페인에서 출생한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인 그는 현재 바렌시아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이예페스(Narciso Yepes, 1927~)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작곡법과 화성학을 배웠다. 작품은 스페인의 민족적 소재를 현대적 수법을 사용하여 이지적(理知的)인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세 사람의 찬가집중에서 여기 소개한 Tango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리듬과 새로운 멜로디는 흥미로운 감을 준다. 이곡은 스페인의 국민시인 F. Garcia Lorca에게 바친 곡이다. 기타외의 작품으로 피아노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등이 있다.

Stephen Dodgson $(1924\sim)$

런던 왕실음악 아카데미의 기타교수인 Dodgson은 Hector Quine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낸 기타 연습 꼭집 I. II권에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설명을 붙인 10여꼭씩의 연습곡집이 있고 15년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작곡한 기타협주곡도 남기고 있다.

(Partita)

Partita는 1963년 작품으로 John Williams에게 헌정한 곡인데 동년 7월 14일 기타 훼스티벌에서 초연하여 19 66년에 윌리엄즈의 운지로 옥스포드 대학에서 출판한 것으로 4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악장마다 짧지만 리드미컬한 하모니로 근래에 드문 순수한 감을 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Vincente E. Sojo

베네쥬엘라(남미의 북부에 위치한 공화국)의 민요를 소재로한 낭만적인 소품집이다. 다섯개의 서로 다른 작품에는 형식, 속도, 장조와 단조의 흐름을 고루 배열하여 엮은 곡이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우수에 찬 영상이 애절하게 노래하는가 하면 밝은 미소가 어린 또다른 풍부한 표정을 보여주는 면도 있다. 가장 마지막 곡은 복잡한 리듬의 변화도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다이나믹(강약법)또한 잘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왼손 운지의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Dimitri Fampas

(Danse Greeque)

밝은 그리스의 정통적인 무곡을 그린 곡으로 주제의 반복에서 파생되는 변주적 요소를 갖고 전개된다. 처음의 Tambora (오른 손목을 회전시켜 손바닥쪽 부분의 엄지로 브릿지 가까이를 때리는 주법)가 타악기적인 효과를 얻게 연주해야 하며 빠른 꾸밈음의 명확한 소리와 슬러 Slur의 모음(母音)을 강하게 하는데서 오는 강약법을 잘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맑고 가벼우면서도 우아한 리듬으로 밝게 진행하도록 해야할것이다.

* * * * * * *

지금까지 출간된 편자(編者)의 명꼭집들이 기타 음악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수록된 명꼭(名曲)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해설하려 노력했으나 미흡(未拾)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주상 의문점들이 발견될 것이며 그러한 의문은 반드시 풀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은 편자(編者)와 함께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언제라도 편자에게 질문하면 성의껏 응답할 것을 약속드린다.